



사람을 벌고, 돈을 벌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번다는 것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내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버는 것에는 물리적인 물건과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에게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인 물건과 나를 도와주는 내 사람인 부모 형제와 자식과 친구가 있다. 사람은 노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벌기 위해 자식을 낳아 기르고 투자해 교육하며 노후를 위해 번 돈을 저축한다.

온갖 노력을 다해 돈을 벌고 모으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노후를 돕는 것은 내가 벌여 놓은 사람이 곁에서 나를 도우며 애도하고 나를 돕는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지만, 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벌지 못한 삶을 산 것이다. 그러므로 돈보다는 먼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벌고 다음에 돈을 벌어야 한다.

내 곁에 있지만,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부부는 평생 한집에서 같이 살지만, 노후에 서로 도울 수 없는 부부라면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부부나 자식이 내 사람이 되게 내 사람을 벌어야 한다. 주변 사람은 이웃이며 친구다. 이 사람들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을 버는 것이다.

사람을 버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학창 시절 친구도 만남이 없으면 남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버는 것은 만나는데 시간과 도움이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만남이 없으면 내 사람이 남이 되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만나서 서로의 정을 나누어야 한다.

만남에는 직접 만남과 간접 만남이 있는데 간접 만남은 통신 매체를 통한 전화나 카톡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만나는 것이다. 돈은 조금만 잃어버려도 아까워하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를 만남이 없어 잃어버리는 것이다. 나이 들면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며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고 일가친척도 남이 되어 혼자입니다 의 고독한 노후가 된다.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내가 벌여 놓은 사람이 멀어지고 없어진 것이다. 그러

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직접 간접으로 만남이 있어야 하며 노후의 시간을 만남을 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가게를 차린 사람이 성공하려면 먼저 내 가게에 사람이 찾아오게 사람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 사람인 단골손님은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벌려면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배움의 장소인 학교 동창들, 사회의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동호인들, 직장이나 사업하면서 연관을 두고 만나는 고객들, 종교단체인 교회나 사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동심원을 그리고 가까운 순서로 내 사람을 적어 보면 많지 않다. 사람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적으로 어려울 때 중심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벌어야 한다.

옛날 어느 부잣집 아들이 친구를 사귀다며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갖다 쓰며, 많은 친구가 있다고 아버지께 자랑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불러 이불에 덮어준 피를 보이며 "아랫마을 김 서방이 돈을 갠다 왔다가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그를 죽여 이불속에 숨겼다. 날이 새기 전에 송장을 처리해야겠으니 너의 친구를 한사람 데려오너라" 라고 했다.

아들은 황급히 나가서 가장 많이 술을 사주고 사귀 친구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핑계를 대며 거절했으며 다른 친구들도 모두 거절했다. 아들은 그냥 돌아와 아버지께 사실을 고하니, "그러면 건너 마을 최 서방은 나의 오랜 친구인데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해라" 했다. 최 서방은 아들을 반가이 맞이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나섰다. 집에 돌아와 사랑채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이불로 덮어놓은 것은 시체가 아니라 피 흘린 돼지고기와 술상이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크게 반성하고 진정한 친구요 내 사람을 만드는데 평생 노력했다는 이야기다.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일 년 동안 내가 번 돈과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결산해 보고 반성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한다.

광범위한 마약류 확산, 경각심 필요

마약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치료 지원 확립과 마약청정국 복귀 희망

오철욱 진도서수사과수사지원팀장경감

기고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천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단속 1만5천182명에 비해 47.5% 늘어났으며, 특히, 한국 거점 해외 마약 조직 적발 소식은 SNS를 활용한 세계적 마약범죄 확산을 확인한 실사례라 할 것이다.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한, 전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은 긍정적인 결과라 생각된다.

나이·성별·지역 불문으로 퍼지고있는 마약 사범 증가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가 쉽지않다는 염려와 경각심을 느끼게 한다. 마약사범 검거에 안심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은, 마약의 은밀성·중독성, 재범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마약 범죄는 언제든 율기하고, 전파 확산이 쉽게 이뤄지는 중독성 있는 범죄이며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에 보다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hidden crime rate) 측정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 암수율은 28.5%로, 국내 마약 투약자 규모는 24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치료 환자는 721명에 그쳤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 치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은 인천 잠사량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뿐으로, 치료 받은 마약 중독자의 80%가 이곳을 이용한다고 한다.

마약 중독자 치료 병원은 전국에 24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 중 9곳은 지난 5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며,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의 사수는 오히려 감소된 실정이다. 의사는 '18년 170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치료 병상도 '18년 414개에서 '21년 292개로 떨어졌다. 올해 360개가 됐다.

마약 사범 체포만큼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치료는 안전관리 등 문제가 겹쳐 힘든 과정임에도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는 점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마약중독치료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등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약 근절 전쟁 승리와 청정국 복귀를 위해선, 단속·검거와 함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재활이라는 두 축이 맞물려갈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약, 단 한 번이면 당신은 끝" "한번은 괜찮겠지, 마약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 포스터 문구들이 없어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청정국 복귀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는 생명이다

박현익 강진소방서현장대응팀장

기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동호인에게 119로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체육시설내에 비치되어 있는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란 의료장비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가장 기본적인 AED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순간 필자는 관공서에는 비치되어 있기에 인근 경찰서에서 가져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여 그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현장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계절은 혹한기를 걱정해야 하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 같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야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휴일에는 어느 곳에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즘 대세인 테니스 종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테니스 종목을 처음 접하는 동호인을 일명 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테니스 코트를 가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이고 휴일에는 동호인 대화도 많이 있어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인데 필자가 12월 9일 테니스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보려고한다.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동호인이 갑자기 고목나 무 넘어가듯이 코트장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환자는 호흡곤란과 경련이 일어났고 동공은 많이 산대 돼 있는 상태여서 필자는 환자를 양와위자세로 교정하고 기도확보,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를 관찰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주변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몰려 들었고 이내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에게 패드를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하여 사용자에게 심장 충격 필요 여부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전기적 심장충격(제세동)을 시켜주는 의료기기를 말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대형체육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최근 테린이의 증가 추세는 뚜렷하지만 기존에 20년이상 테니스 경기를 즐겨온 50, 60대 베테랑 동호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사용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설치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그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필자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마음에 그날 경기에서는 쫓지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